

“겨울 건강식품 고로쇠가 돌아왔다”

장성 남창·가인마을 일대 고로쇠 채취 시작...20일부터 판매

장성의 명물 '고로쇠'의 계절이 돌아왔다.

장성군은 이달 10일부터 백암산 주변 남창마을과 가인마을 일대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를 시작하고 20일부터 구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고로쇠 수액은 마그네슘과 칼슘, 지당 등 여러 종류의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관절염은 물론, 이뇨와 변비, 위장병, 피부미용 등에 좋은 자연산 웰빙 음료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장성 고로쇠' 노령산맥 청정지역 바위틈에서 강하게 자란 고로쇠 나무에서 뽑아 내 다른 지역보다 청량감이 좋고 농도가 높아 최상의 품질로 평가받고 있다.

장성군은 2015년부터 3억 5천여만 원을 들여 고로쇠 수액의 품질을 관리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부터 고로쇠 수액의 채취 작업을 자동화하고 자동 포장 설비를 갖춰 깨끗한 환경에서 현대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주민들 또한 수액의 과다 채취를 막고 품질 강화를 위해 채취 횟수를 한 그루당 1년에 1회로 제한하고, 나무의 크기별로 구멍 뚫는 개수를 엄격히 지키는 등 자체적인 관리감독을 벌여 품질 유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장성군은 이달 10일부터 백암산 주변 남창마을과 가인마을 일대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를 시작하고 20일부터 구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고로쇠 수액 출하시 홍길동캐릭터가 새겨진 품질인증 스티커를 부착해 품질을 보증하고 생산물 책임보험에 가입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창마을 관계자는 “현재는 고로

쇠 나무에 채취를 위한 작업이 한창이며 20일부터 고로쇠 수액을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채취는 오는 3월 말까지 계속되고 올해는 약 18만 리터의 수액을 채취할 예정이다.

고로쇠 채취는 오는 3월말까지 약

18만리터 가량 채취할 것으로 보인다. 고로쇠 구입 관련 문의는 남창마을(☎061-393-9896)과 가인마을(☎061-392-7790)로 하면 되고, 택배 구입도 가능하다.

/장성=조승채 기자

나주시 “예산1조·인구15만 목표”

강인규 시장, 저출산 극복 등 총 40건 사업 발굴

나주시는 11일 2018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 6기의 성공적 마무리와 다가올 민선 7기 핵심 추진 동력확보에 주력해가기로 다짐했다.

이날 나주시는 올해 부서별 주요역점시책을 비롯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민중심 체감행정' 발굴 시책을 보고하고, 직원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올해 발굴된 체감시책으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미혼남녀 결혼비용 지원', △민원 친절 서비스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공공행정 분야 직장 체험기회인 '대학생 일자리 제공', △저탄소 녹색성장 및 에너지도시 위상 정립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보편적 교육복지 확산을 위한 '맞춤형 진로대학 프로그램 확대 운영', △택시 승·하차 알람서비스인 '스마트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혁신도시 약취해소를 위한 '축사 폐양 보상 추진', △농업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귀농·귀촌인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멘토링데이 운영', △야간 시민 안전을 위한 '읍성권 원도심지역 어두운 길 밝기 개선 사업' 등 총 40건이 보고됐다.

이어, 부서별 주요 계획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실현 및 전라도 정명

천 년 기념사업 추진을 핵심으로 한 나주시의 새로운 천 년의 비전을 담은 다양한 정책이 보고됐다.

전라도 정명 천 년을 맞아 나주시의 자긍심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념사업인 △'새로운 천년, 나주시의 꿈' 전방탑 건립 사업, △'나주의 숨결 찾기' 스토리텔링 시나리오 공모 사업, △나주 천년사, △천년 순행길 조성 등 5개 분야 24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영강동·남평읍 권역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과 기존 추진 중인 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과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기반계획 수립을 통한 스마트에너지 시티 조성과 혁신도시와 혁신산단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특히 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인 약취해소를 위해 올해 예산에 44억 원을 반영, 도시반경 1km내·외 주요 약취 발생 축사의 폐양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 내 문화·체육·복지분야 주요 거점이 될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의 건립을 위해 올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는 등 국비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나주=서철훈 기자

화순군, 명품 농·축산물 생산 ‘박차’

농촌진흥분야 시범사업...내달 12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

화순군은 기후변화대응 작물 발굴 등 농촌진흥분야 시범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명품 농축산물생산에 발 벗고 나섰다.

12일 화순군에 따르면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 등 새로운 농업기술 및 유망작목 현장 신속 확산을 통해 화순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촌진흥분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군이 추진하는 농촌진흥 사업은 ‘중밀북지형 산란계 사육 시설개선’ 등 국비 19개 사업에 6억8천5백만 원,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시범’ 등 도비 11개 사업에 3억9천만 원, ‘기후변화 대응 작목 실증재배’ 등 군비 20개 사업에 9억8천만 원 등 6개 분야 50개 사업이다.



화순군은 기후변화대응 작물 발굴 등 농촌진흥분야 시범사업에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명품 농축산물생산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이와 관련, 2월 12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

특히 2개 이상 사업을 중복해 신청할 수 없으며, 보조금 부정 사용 사유

등으로 지원 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자, 국제·지방세 체납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화순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사업 신청을 받은 뒤 현지조사(2월말경)를 거쳐 3월초 농업신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신소득 작목을 적기에 육성·보급하고, 새로운 영농기술의 신속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종백 기자

영광군,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점검

관리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영광군은 대기오염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와 오염 방지 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를 지도점검하는 ‘2018 환경오염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올해 지도점검은 1,073개 사업장의 오염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등을 적정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기업 활동에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장 방문 1회에 환경분야 전체를 점검하는 통합점검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환경 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



공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장 통합 지도점검을 통해 자연환경과 기업 활동이 서로 공존하며 발전하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한 영광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류정호 기자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